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부터 주일공동식사를 합니다.
식사준비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의논하십시오.
당분간 식단을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제 39 - 26 호

2022년 6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김범준 청년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멈추진 않습니다. 음식의 가격을 봐도 같은 음식을 다양한 가격으로 팔고 또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음식, 더 다양한 음식,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찾아가기도 하며 식사 자리로 통해 얻는 특유의 분위기를 촬영하거나 심지어 먹는 것으로 별칭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식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반복적이고 끊이지 않을 먹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며 그것을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먹음으로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주십니다. 가죽은 동물의 생명을 끊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식사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식사의 자리는 이렇게 대가 없는 초대와 환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첫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1년 된 어린양을 잡아 그 피로 집을 표시하고 양고기를 남김없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양은 한 가정 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중 양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이나 이스라엘 식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사는 이렇게 대가 없이 베푸는 온정과 포용이 있으며 빈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로 초대하시는데 광야에서의 식사는 너무 단출했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곤 매일 먹을 수 있는 양 만큼만 가져와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과하게 먹고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와 고민하는 현대의 삶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절제된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만나를 말씀하시며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배고파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대가 없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고 나면 배고프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의미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식사는 이렇게 영원 속에 결핍을 느끼지 않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 밤에 함께 식사하시며 성찬을 재정하셨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섬김과 떡과 잔을 주심으로 유월절 어린양으로 바쳐질 십자가 사랑을 미리 예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어린양을 통해 참 화해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사람도 낙담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용서를 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식사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식사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식사의 자리가 있었기에 꼭 다루어야 할 식사의 자리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사는 환영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포용의 배품, 대가없는 선물과 같은 식사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배려가 있어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주일공동식사가 시작됩니다. 이 식사의 자리가 배부른 식사의자리가 될수도 있겠지만 더욱 의미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사랑방,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방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
<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민수기 16장

제목 : 고라 일당의 반란과 하나님의 징계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이용신 장로

찬송 : 28 290 435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11절 고라 일당의 반역

12~19절 고라 일당과 두 사람의 대결

20~35절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다

26~40절 향로를 제단에 씌우다

41~50절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다

2. 내용의 의미(Why)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위주의 체제로 재편하려는 탐욕을 드러내면서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자.
- ② 어렵고 힘들 때 중보기도에 열심을 내자.
- ③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자.

마기꾼 신앙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제 마스크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 최근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면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아직도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다. 마스크와 한 몸이 된 듯, 마스크 벗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얼굴에 화장하지 않아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혹시 '마기꾼' 효과 때문일까.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인 '마기꾼'은 마스크를 썼을 때 미남, 미녀처럼 보였는데 막상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상상했던 얼굴과 많이 달라 '사기당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표현하는 신조어다.

원래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나 아픈 사람을 연상하며, 코로나 19 시기에도 많은 사람이 마스크 쓰기를 꺼려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마스크 쓰기에 동참해 왔다.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된 탓인지, 단순히 하얀색 일반 마스크 말고도 패션을 생각해 '새부리형' 마스크, 총천연색 마스크 등도 많이 쓰고 다닌다. 그런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며 마기꾼 효과를 누리는 것일까.

사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기 이전에는 의료용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대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로 인식해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한다. 의료용 마스크는 주로 아플 때 착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경험한 뒤에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킨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 때문에 마기꾼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혹시 우리 신앙에는 마기꾼 효과가 없을까. 우리의 민낯은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마스크'를 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상황에 빚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마스크를 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 즐겁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교회에서 오랜만에 함께 탁구를 하고,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다. 우리의 신앙도 마스크 없이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크 덕분에겠지만 말이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미가서 4 : 2b

23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1서 1 : 9

286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십시오" 정재훈 목사

갈라디아서 5 : 1, 13-25

458

설교자
공동체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54

51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이돈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상잔의 아픔 속에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십시오

율법으로부터 해방 갈라디아 교회들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해방은 어디로부터 구속되거나 억압된 상태에서 놓이게 된 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의 전제 조건을 구속이나 억압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짐지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사역의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와 절기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 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가치와 방향이 중요 합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를 서로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쓰고 형제들의 종이 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가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최상득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한 주간 해가 떠있는 날보다 우중충한 날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더위에 습기가 같이 찾아와 온 몸이 끈적끈적 하지만 아이들은 빨간 볼을 가지고 거침없이 뛰면서 논다.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너무 힘들면 잠시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위를 잘 이겨내며 노는 꾸러기들이 여름에만 하는 놀이가 있는데 바로 물, 모래놀이입니다. 딱 여름에만 모래사장 옆에 큰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서 노는데 월요일에 물,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놀이를 하기 전 서로 싫으면 안 뿌리기와 얼굴을 뿌리지 않기라는 두 약속을 하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본인 몸, 친구 몸 가리지 않고 사이좋게 물을 뿌려줬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뿌리는지 실수로 얼굴에 물을 뿌려도 쿨하게 넘기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즐겁게 놀았습니다.

서로 돕는 사람들을 보러 의정부제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다닌 마트와는 분위기에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만원 내에 심부름을 받아 사보기로 해서 사야 할 것을 어디서 살지 시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살 것을 아이들이 직접 고르고, 계산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긴장한 탓에 작은 목소리와 함께 돈을 드리는데 그 모습이 예뻐서 사장님들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두 손으로 돈을 받고, 물건과 거스름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꾸러기가 두 손으로 예쁘게 받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존댓말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주셨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반은 맑고 반은 비가 온 한주였습니다.

지난 주에 기도 부탁드렸던 에버랜드, 캐리비안 여행을 월·화에 다녀왔습니다.

부풀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출발을 했지요~

여름 더위를 벌써 즐기러 온 사람들로 캐리비안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

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알록달록 예쁜 수영복을 입은 친구들, 뽀뽀 나온 배가 정말 귀여운 친구들 뜨거운 햇살 속에서 첨벙첨벙 잘도 놀았습니다. 물에 쏠려 놀다가 형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더위에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역시 물놀이는 따듯한 엄마 뱃속 같나 봅니다.

그날 저녁에는 에버랜드로 건너가서 야간개장을 즐기고 다음날은 에버랜드 오픈 전부터 줄을 서고는 본격 놀이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심장이 아니면 탈수 없는 기구를 몇 번씩 타는 친구들, 동물이 좋아서 눈에 뽕뽕 하트가 나오는 친구들, 그냥 함께 있는게 좋은 친구들, 다양한 모든 마음들을 지켜 주려 교사들은 무척 바빴습니다.

아, 축석이 이렇게 반가운 곳이었던가요~? 축석에서 부모님들께 친구들을 안겨주고 교사들은 그제야 안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목요일은 공동체 밭에 튼실튼실 박혀있는 감자를 캐습니다. 신기하게도 잠깐 비가 멈춰 감자를 캐고 후엔 비가 왔고, 그래도 무거운 감자를 한 봉지씩 들고 비를 뚫고 집으로 가는 친구들의 모습은 뿌듯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감자 농사가 잘 된 것처럼 어린이들도 튼튼하길 기도 합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지난주, 한 주간 장마철의 시작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던 것 아셨나요? 멋쟁이들은 알았습니다. 멋쟁이학교에서 비는 노작과 아침 운동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ㅎㅎ

멋쟁이 노작시간에는 웬만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노작시간은 수요일 점심시간 후로 1,2,3학년과 4,5,6학년으로 나뉩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다들 수요일에 비가 와 노작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노작 시간에는 별이 짹짹하다가 목요일 새벽부터 부슬부슬 비가 오더니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습니다. 참 신기한 타이밍입니다.

목요일 열린 수업 시간에는 학년별 여행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학년들은 학년끼리 처음 준비해 보는 발표에 수줍어했지만 고학년들은 제법 여유가 느껴집니다.

다음 주, 멋쟁이들은 자율 평가서 작성과 종강 발표회 준비로 본격적으로 학기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 교사 : 박예나 >

기 대

이른 아침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이 깨어 창문을 여니 달콤한 밤 꽃향기가 그윽히 풍겨옵니다.

제가 그루터기로 이사온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느끼며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 자유롭게 살다가 함께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고 낯설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봄! 교회 마당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특히, 과수나무가 화사하게 꽃을 피워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전, 교회 행사 '교회로 소풍 가요'로 오래간만에 그리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너무 반가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도시락도 먹고 가정별로 사진도 찍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한 참 흘렀지만 문득 초창기 자연 예배드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매월 마지막 중에는 온 교인이 자연에 나가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소풍가는 마음으로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오가는 길이 멀어 버스를 대절하기도 하고, 그때는 자가용 있는 가정이 별로 없어서 함께 끼어 타고 가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것이 좋고 꿈이 있었기에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다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예배 장소와 불렀던 찬양이 추억으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도 많이 안정되면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도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는 사랑방공동체를 기대하며, 시원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예전과 같이 차도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랑방 가족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민수기 15장 13절~16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상 기후를 위한 기도>

기후 변화의 여파로 올해 전 세계에서 전례없는 폭염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멸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파공동체를 위한 기도>

올해 라파 공동체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잘 받아서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첫해가 될 수 있기를.

라파 중독자치유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교회, 예수의 단순한 삶 공동체, 라마파를 생태자연농장의 네 기관이 각기 교회를 이루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금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수많은 무명 용사들을 위하여.

<생활공동체 소식 >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에 배수로도 정비하고 농작물 중 추수를 해야 하는 종류들은 추수를 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공동체 마당 배수로에 흙과 나뭇잎을 퍼내는 작업과 완두콩을 거두어 까는 작업을 멧쟁이들과 함께 노작시간에 했습니다. 예보에 맞게 엄청난 비가 다음날 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모릅니다. 다행이 침수가 된 곳도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니 조금은 염려되지만, 이번 장마는 잘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히 아무 탈 없이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